

전주교대 총장 임용 후보자 법정다툼

후보자 이용주 교수 “교육부 장관 임용 결격 사유 없음에도 해명할 기회 주지 않고 제청 거부” 주장

전주교육대 총장 임용 후보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교대 총장 임용후보자인 이용주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임용 제청 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이 교수 측은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16개월 동안 교육공무원법과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임용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요구한 방식인 ‘총장 공모제’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절차를 통해 후보를 선정했는데도 교육부는 임용 제청 절차를 밟지 않고 거부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상 심각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전주교대 교수협의회도 지난 20일 총장임용 후보자를 재선정하라고 요구한 교육부에 대해 “합법·민주적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공립대 총장 임용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된 것은 공주대와 방송통신대, 경북대에 이어 이번이 4번째가 된다.

이들 3곳에서 교육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총장 임용을 거부해 소송이 진행



‘폭포수를 영접하라’

찜뚱더위가 이어진 26일 오후 어느 워터파크를 찾은 어린이들이 폭포수를 맞으며 더위를 나고 있다.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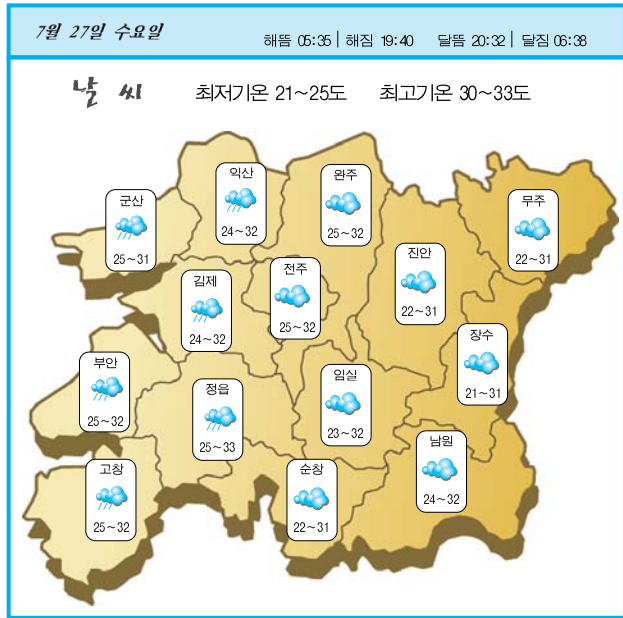
이 가운데 공주대는 1심과 2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올라가 있으며 방송통신대는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경북대는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해 고등법원에 올라간 상태다.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전주교대의 총장 없는 파행 상태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5일 전주교대에 공문을 보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 후보자를 대법원에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으며 재선정에 추천하라고 통보했다.

/고민형기자



도교육청·교육부

9개 지역 특화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북의 탄소산업 등이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26일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내실화와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전국 9개 지역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은 탄소산업과 3D프린팅이 선정됐으며 경남 항공·우주와 해양·조선 분야 경북은 해양·자원, 대전은 과학, 충북은 방송·문화예술, 대구는 섬유·패션 등이 각 시·도교육청이 발간한 특화산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수준 높은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자유학기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약 245회 운영하는 동안 총 2만 2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등 43개 기관이 지역별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각 컨소시엄은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설계 지원을 위해 현장직업체험 및 견학, 학과체험, 멘토링 등으로 구성된 종합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사회의 다양한 기관이 함께 하는 지역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통해 진로탐색과 설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민형기자

‘풍남문 빛의 옷을 입다’ 미디어파사드 공연 연장 운영

8월 12일~10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두차례 진행

전주를 대표하는 야간 관광·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한 풍남문, 빛의 옷을 입다 미디어파사드 공연이 연장·운영된다.

전주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풍남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풍남문, 빛의 옷을 입다’ 공연을 오는 10월 말까지 3개월 연장 운영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장 공연은 오는 8월 첫째 주 시스템 점검 및 정비 과정을 거친 후 오는 8월 1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추석연휴 기간을 제외한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와 9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 공연은 오는 28일 새롭게 선보일 완판본 소재의 신규 콘텐츠가 상영되며, 9시 30분에 시작되는 2회차 공연은 기존 상영된 영상 콘텐츠를 압축·수정된 영상이 선보일 예정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콘텐츠는 총 4부로 구성된다.

전주의 완판본을 소재로 우리 고유의 기문화를 시각화하고 옛 풍속화와 민화의 재해석을 통해 전주의 풍류정신을 관광객들에게 일린다.

또, △한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풍남문의 아이티리움 변신 △전주 어린이들의 그림으로 몰라주된 미장센 △2017년 U-20 월드컵 개최도시 축하 세레모니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시는 평일 야간경관상설공연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공연이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물론 대한민국 대표관광지인 한옥마을

과 남부시장을 이어주는 통로가 됐다고 판단, 전주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체류형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연을 연장으로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전하기로 했다.

실제로 전주시 자체 통계에 따르면 미디어파사드 공연은 지난해 12월 전 동성당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풍남문 상설공연까지 약 8만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평일 야간 공연임에도 SNS와 입소문 등을 통해 꾸준히 관람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풍남문 증강현실(AR)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낮 시간에도 미디어파사드 공연 관람이 가능해졌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은 사람들이 보는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

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을 뜻하며, 스마트폰 구글플레이에서 ‘미디어파사드 AR’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풍남문 정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공연이 없는 낮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연장공연에도 전주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부득이 한시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변경·운영하고, 차량정비를 통제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풍남문 경우 버스노선이 완산경찰서 맞은편 임시정류장으로 우회 운행되며, 풍남문 로터리·완산경찰서 사거리·송약국 사거리·대화철물점 사거리 등 풍남문 일대 일부 구간에 대해 차량 통제가 진행된다.

/김영재기자

취업사교육비 1인당 연평균 223만원

취업사교육을 받는 대학생은 줄고 1인당 연평균 취업사교육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국내 4년제 대학 3·4학년 대학생 남녀 993명을 대상으로 ‘취업사교육 경험과 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사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답한 대학생은 18.2%로 10명 중 2명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인당 평균 취업사교육비는 3년 전에 비해 늘었다. 올해 조사결과 1인당 취업사교육비

는 연평균 22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전(57.3%) 조사 결과와 비교해 취업사교육을 받는 대학생은 39.1%p 낮은 수치다. 또 1인당 취업사교육비는 평균 16만원이 높은 수준이다.

대학생들이 취업사교육을 받는 과목은 ‘영어’와 ‘자기소개서 작성’ 등 취업컨설팅이 주를 이뤘다.

취업사교육을 받은 과목 중에는 ‘토익·토플·토픽’ 등 어학성적 취득을 위한 사교육을 받았다는 답변이 응답률 33.1%로 가장 높았다.

/박용주기자

국립예술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